

●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질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코헬렛 3장 1 ~ 8절)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앞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언제고 항상 한 걸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인격을 높이는 것이며,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즉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채근담

- 삶 앞에 겸손하라. 삶의 순리를 억지로 돌리려 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그릇되게 하는 모순의 감옥일 뿐이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거슬러 흐르지 않고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이다. 이 말에서 보듯 시간을 거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질서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해야 한다.

순리를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다.